

# 청소년 꿈·역량 강화 공간 조성

###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청소년수련원 신축 생활관 준공

임실군이 기존 청소년수련원에 더해 생활관을 추가로 건립, 전국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공간을 새롭게 오픈했다.

군은 12일 관촌면 사선대 인근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 신축 생활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설상희 부군수와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및 의원,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은 2012년에 준공,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49객실, 334명을 수용 가능한 생활관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추가로 건립한 생활관은 연면적 2,142㎡에 지상 3층 규모로 29객실, 87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더욱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을 찾은 청소년은 6,200여명, 일반인 2,100여명에 달한다.

이곳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학교뿐



임실군은 12일 관촌면 사선대 인근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 신축 생활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만 아니라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전국 각지에서 수련 활동 및 시설 대관을 위해 많은 이들이 방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심민군수는 "이번에 새로 지은 생활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전북을 대표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답게 편리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농기센터, 국산 햇참깨·햇들깨 수매 나서

### 지역업체 지리산처럼과 협력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 이하 센터)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목표로 '지리산처럼'과 협력하여 국산 햇참깨·햇들깨 수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 참여한 첫 수매 행사를 통해 15톤 이상의 농산물을 확보했으며, 현장은 축제를 연상케 할 정도였으며, 지난 11일에도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2차 수매 행사를 펼쳤다.

"지리산처럼"은 이날 수매 행사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감사 선물과 새 포대 지루를 제공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으며, 수매한 들깨를 활용해 자체 생산한 프리미엄 참기름, 들기름, 들깨탕, 삼계탕, 막국수, 칼국수 등으로 전국 유통을 통한 연 매출 29억 달성과 함께 2025년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센터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가와와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드림스타트 가족 캠프 진행

임실군이 지난 8~9일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에서 드림스타트 30여 가구 13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따뜻한 추억 여행이라는 주제로 가족 캠프를 운영,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고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여 드림스타트 가족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박에는 온 가족이 강당에 모여 전문 강사와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가족 간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 가족끼리 사선대를 산책하면서 보물찾기하면서 가족들이 하나 되어 응원하고, 춤추고, 함께 뛰고, 웃는 시간으로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과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유기질비료 지원 접수

순창군이 2025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11월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희망 업체 및 제품명을 명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속유기질 비료 2종(가족분퇴비·일반퇴비) 등 총 5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떡볶이는 이제 순창 떡볶이”

### 순창발효관광재단, '떡볶이 페스타' 16~17일 개최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순창 떡볶이 페스타'를 개최한다.

'순창 떡볶이 대장 잔치'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민 간식 떡볶이에 순창 장인들의 특별한 손맛을 더했다. 수백 년 전통의 순창 장류로 완성된 떡볶이 소스는 깊은 감칠맛으로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행사는 K-FOOD를 대표하는 떡볶이와 순창 전통 장류의 만남을 통해 '순창 떡볶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알리는 한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순창 장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장류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특별 행사가 진행되며, 행사에는 순창 고추장 명인과 기능인들이 직접 참여해 장류문화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축제장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하다. 메인 무대에서는 어린이 공연과 퍼포먼스, 우수 떡볶이 시상식이 열리고, 아늑한 피크닉 존에서는 맛있는 떡볶이와 함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울러, 플리마켓에서는 순창의 특산품과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추억의 교실 레트로 분식집 포토존, 페이스 페인팅, 비눗방울놀이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에서는 트레킹과 보물찾기, 미션수행 어드벤처 프로그램, 라이브 커머스 등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복지안전 119' 앱 자체 개발 보급

남원시는 12일,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한 '남원 복지안전 119' 애플리케이션(APP)을 자체 개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긴급구조 119, 도움 요청, 안전 신고, 안전 지도, 안전 수칙 등 5가지 주요 기능을 탑재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며, 기능은 건강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전화 연결과 동시에 비상 연락망(보호자, 지인 등)에 도움 요청 문자를 자동 발송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도움 요청 기능을 통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위험장소와 확대 및 자살 위험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신고 기능과 대상자 주변의 공공기관, 병원, 무더위 쉼터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지도, 안전 수칙 동영상

상 재생 기능을 통해 시민들이 위험 및 재난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남원 복지안전 119 앱 개발은 스마트 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 올해 활동 마무리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대표 의원 김길수)'는 지난 7일,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회원인 김길수(대표 의원), 손종열, 이미선, 오창숙, 이숙자 의원과 남원지역 민간 치유농업 연구회 회원들 및 남원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 그동안의 활동 결과 보고와 함께 관내 민간 치유농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형 치유농업 연구회는 관내 치유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체계화하여 남원형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내 민간에서 운영 중인 연구회 회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내 치유농업연구회 회원들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길수 의원은 "앞으로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지역 농촌과 농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겨울철 상수도 시설 동파예방 대책 추진

순창군이 동절기를 앞두고 수도계량기와 급수관로 동파 예방에 나선다.

올겨울 한파가 예년보다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12월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상수도시설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단계별 민원처리기동반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동파에 취약한 북흥, 쌍치, 구림지역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 중으로 순창군 전역의 수도계량기 함 일제 점검을 실시해 동파 위험이 있는 가구에 점검결과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물 관리로 동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